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협력 확대...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젠슨 황, 자율주행 플랫폼 소개
아이오닉 5 등 대표차량 제시
퍼지컬 AI 생태계 구축 '맞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직 센터에서 열린 GTC 기조연설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차량이 포함된 자동차 이미지 앞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엔비디아 유튜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GTC 기조연설에서 현대차그룹을 자율주행 협력 사례로 소개하며 양사의 협력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황 CEO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협력이 반도체를 넘어 모빌리티와 로봇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1일(현지시간)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GTC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하이퍼리온'을 설명하며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G70을 대표 차량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의 핵심 자율주행 파트너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아이오닉 5는 모셔널과 웨이모의 로보택시 차량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네시스는 연내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레벨4 구현에는 차량 제조 기술뿐 아니라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 가상 시뮬레이션,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완성차 개발과 로보택시 운영 경험은 갖췄지만, 대규모 데이터 학습 체계와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델 확보에 어

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차세대 추론형 자율주행 모델 '알파마오 2 슈퍼'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차량 주변을 360도로 인식하고 차선 변경, 양보 등 복잡한 주행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웨이모와 테슬라 등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주당 50만 건 이상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FSD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박민우 AVP(첨단차플랫폼) 부부장 겸 포터두트 대표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과거 엔비디아 부사장으로 자율주행 인지 및 물리 AI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로, 젠슨 황 CEO의 핵심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양사의 협력은 자율주행을 넘어 로봇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와 함께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GPU 5만 개를 활용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AI 모델 학습과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엔비디아의 '옵니버스'와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 로봇 개발과 시뮬레이션 환경도 구축한다.

업계 관계자는 "황 CEO가 방한기간 뉴스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관심은 GPU 판매 확대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현장으로 이어지는 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CEO와 정이현 현대차그룹 회장의 만남은 오는 5일 이뤄지는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오는 8일로 예상되는 주요 기업인 회동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중, '부유식 데이터센터' 사업화 박차

英·그리스 등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최성안 대표 "FDC 시장 선제적 진입"



삼성중공업이 개발하는 부유식데이터센터(FDC) 조감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해 부유식 데이터센터(Floating Data Center·FDC) 시장 선점에 나선다.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인증, 시장성 검증, AI 서버 운용 기술까지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하며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떠오른 FDC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은 1일부터 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6'에 참가해 그리스 선주사 캐피탈, 영국 로이드선급과 FDC 3자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FDC 기술 개발과 건조를 맡고, 캐피탈은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를 담당한다. 로이드선급은 FDC 관련 규정과 인증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중공업은 로이드선급 산하 컨설팅

전문회사인 로이드 어드바이저리와도 별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북미 지역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시장성을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진행해 글로벌 FDC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통신 박람회 '이노베이트 APAC 2026'에서 미국 AI 서버 전문업체 수퍼마이크로와 공동개발 협력(J

DP)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FDC 프로젝트의 투자처 발굴, 시장 분석과 경제성 검증,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바다 위 데이터센터는 조선·해운업에 열려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FDC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기아, '스포티지 HEV' HMGMA 생산

美 시장 SUV 생산·판매 확대



마티 캠프 여사와 브라이언 P.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탑승한 첫 번째 HMGMA 생산 기아 스포티지 HEV가 자율이동로봇에 실려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기아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폭탄에 대응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북미 공장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HEV)를 직접 생산한다. 기아는 그동안 스포티지 수출 모델을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했다.

기아 미국 법인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앨라배마에 위치한 HMGMA에서 스포티지 HEV 생산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생산을 본격화했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HMGMA 최초의 기아 모델이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에 이어 세 번째로 HMGMA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다. 이날 HMGMA에서 생산된 첫 번째 기아 스포티지 HEV는 자율이동로봇에 실려 무대로 등장, HMGMA의 고도화된 자동화 역량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라인업 합류로 HMGMA는 전기차·하이브리

드를 아우르는 전동화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 기아는 미국 시장을 위한 SUV 생산 및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전체 라인업의 전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기존 웨스트포인트 지역 기아 조지아 공장과 HMGMA의 생산 역량을 더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5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글로벌 신용등급 상승... B2B 중심 체질개선 주효

S&P 'BBB+' 상향... "주력사업 성장"

LG전자가 생활가전과 전장, 구독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평가를 받았다. 프리미엄 가전 시장 지배력과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 안정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LG전자 신용등급을 기존 BBB, Positive(긍정적)에서 BBB+, Stable(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S&P는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으로 부채 감소 및 재무구조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Stable(안정적) 전망은 LG전자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 탄탄한 잉여현금흐름 창출과 부채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P는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구독 및 B2B 사업 확대를 통해 LG전자의 핵심 사업이 향후 2년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력사업인 생활가전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공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독 사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신시장 공략 역시 생활가전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1~2년간의 완만한 수익 창출을 전망했다.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등 주요 제품군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예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UL 솔루션즈' ECV 인증

친환경 소재 기반 자원순환 체계 강화

삼성전자가 폐자원을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폐유리와 폐식용유에 이어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된 페스티로폼까지 재활용 소재로 활용 범위를 넓히며 친환경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신소재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내장재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 후 남은 포장용 스티로폼을 수거해 선별 및 제조 공정을 거쳐 기존 소재와 동일한 품질의 플라스틱 혼합 신소재로 재탄생시켰다. 포장용 스티로폼은 오염도가 낮아 냄새와 유해물질이 적어 재활용 소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번 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스포크 AI 무공품보 갤러리' 에어컨과 '인피니트 AI 공기청정기'의 내장재에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UL 솔루션즈'로부터 재활용 소재 함유율 10%에 대한 ECV 인증을 획득했다.

/차현정 기자